

회요세평



명진
알임인권작은도서관장

인구감소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가운데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다문화시대 우리 사회의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탄력성 증가를 위하여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은 2018년 기준 137,225명으로 전체 학생의 2.5%에 이르며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이주의 여성화 등에 의해 이주민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OECD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율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각 나라별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학생들의 취학을 격차를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미미하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화

되어(중 2.8%, 고 3.6%)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4.8%에 달하게 된다. 또한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비 이주배경 학생들과 차이가 0.18%로 크지 않으나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0.7%)에 비해 이주배경 학생(1.47%)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는 여가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살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주배경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80.8%, 복수응답)와 '선생님의 차별대우'(45.0%)를 꼽았으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29.9%)',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26.7%) 등이 이어진다. 중학교 생활에

서 두드러지는 부적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등 시기에 학습능력 향상과 또래집단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스로 처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성격특성을 말하는 자아탄력성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패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을 높여 주변 상황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상담 등 전문적인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시대에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지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봉철의 골프기인문학을 만나다



<6-2> 라이프니츠의 골프경영

신이 계산하고 생각하면 세계가 생겨난다. 라이프니츠는 낙관론의 스윙이다. 현존하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다. 세상에 실제로 현존하는 것은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이다. 그리고 현실화되지 않은 무한하게 많은 가능성들은 그저 가능성 자체로 남는다. 라운드는 경쟁으로 고수와 하수의 대립이다. 경륜이 많은 골퍼와 왕초보 골퍼의 실력은 핸디캡이라는 수로 측정할 수 있지만 승리의 가능성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승리의 요건에는 필연성과 우연성이 있다. 고수가 현존하는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중에서 선택된 가능성이 높다. 하수의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 자체로 남는다. 어떤 것이 필연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우연적인 것인지 구별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가능성 개념이다. 이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필연적 진리와 우연적 진리를 구별한다. 구별을 통해 세계의 무한한 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우연의 본성을 밝힌다. 하

가능성을 가진 낙관론의 스윙을 하라



리적인 해석과 처방을 내린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골프 라운드는 논리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승부욕, 게임의 진행을 위한 경쟁성, 심판이 없는 경기, 4명이 함께하는 게임은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명분이 아무리 올바르다 하여도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경쟁성과 승부욕이라는 게임의 명분으로 억지로 끼어 맞추려고 할 때 라운드는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 심판이 없는 경기라는 페어플레이를 가장한 오염된 이종성은 선하고 행복한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맨십이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불러온다. 인간의 정신은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리가 감각적 경험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만든다. 의식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정신적 실재인 모나드는 자신의 고유한 육체를 특히 명석하게 표상한다고 함으로써 각각의 명석성을 주장한다. 명석과 판명의 스윙이다. 명석은 어떤 대상을 그것의 외연적 증표에 근거하여 다른 대상과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의 의식상태이다. 판명은 대상을 그것이 그것에게 하는 원리적 근거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상태를 말한다. 라운드 시 플레이어의 자연플레이는 최악의 상황이다. 정해진 시간 40초 안에만 타격하면 된다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시간은 정당하다. 하지만 경쟁자의 입장에서 동반하는 동반자의 시간 지체는 제고되어야 한다. 라운드 시간은 유한하지만 동반자와 함께 하는 라운드에서는 시간의 상대성을 고려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라운드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집중하는데 필요하지만 동반자에게는 혼란과 트러블이 발생하게 하는 상대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 지체는 경험을 단순히 수용함으로써 주어지는 인식으로, 40초라는 시간 이내에서 정당화하려는 논증적 행위에 주어지는 인식의 질을 가르치는 각각의 명증성을 깨우쳐 준다. 라이프니츠의 스콜라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라운드에서도 상대성을 주문한다. 골프클럽리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특지광장

방향지시등 조작 습관화 필요하다

누구든지 한 번쯤 운전 중 선행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당황했던 경험이었을 것이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습관이 매우 잘못돼 있음을 의미한다. 내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사전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운전의 기본예절이며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또한 방향지시등을 켜 후 내가 원하는

차선, 방향으로 완전히 한 뒤에는 켜던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꺼줘야 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다면 뒤따르던 차량들은 이 차가 차선을 계속하여 이동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선을 바꾸거나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하여 사고 없는 건전한 교통문화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극성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홍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로 사고 예방하세요

지난 7월 북구 삼각산 중턱에서 병원을 무단이탈했던 80대 치매노인이 산기슭을 헤매다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치매노인 실종신고는 2015년 9,000여건에서 2018년 1만 2,000여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치매노인 대부분 고령의 나이가기 때문에 실종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이나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하이닉스와 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1만 5,000명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예정

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배회 상황이 강한 치매노인의 이탈 시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준다. 실령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상을 보이거나 실종 경험이 있는 노인을 둔 가족이라면 '배회감지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급률이 낮은 현실이다. 적극적으로 '배회감지기'를 사용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나태환

사설

여주시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밝혀야

여주시가 민선7기 이후 공사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정업체와 하루 3~4건씩 동시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특정지역에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하기도 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여주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주시는 민선7기 권오봉 시장 취임 후 1년여 동안 H건설 등 4개 업체와 100여개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우선 26건의 공사를 마친 H건설의 경우 올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무려 10개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 지난 8월에는 일주일 사이 4건의 공사를 무더기로 따냈으며, 6월 21일엔 삼산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3건을 단독 수주받기도 했다. S토건의 경우도 지난 5월 한 달간 분청 및 일선 읍·면·동 사무소와 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또 다른 두 곳의 공사업체 역시 지난 1년간 정상 이상의 많은 수의계약을 따

냈다. 문제는 공사발주가 이들 4개 업체에 집중됐으며, 그것도 분청과 삼산면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발주된 삼산면 지역 공사 40건 중 30건(75%)이 지난 1년 사 이 집중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단독 수의계약 등은 태풍 등 긴급재해가 발생하면 가능하지만, 긴급재해 상황이 아닌에도 단독수의계약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주시의 회도 최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의 계약 공사발주가 유독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다"며 "심지어 같은 날짜에 2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공사장소만 다를 뿐 공사기간·계약금액도 동일한 만큼 특히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여주시는 명명백백히 그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선부터 공정·투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대리 제출 입당원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말썽이 일고 있는 광산갑 지역 입당원서 전체를 반려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신분 확인된 입당원서에만 권리당원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이 같은 조치는 광산갑 지역에서 "내가 입당원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원서 접수가 이뤄졌다"는 일부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주소지 허위 기재 등의 제보와 민원 또한 폭주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시당의 확인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접수된 당원 중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당원들의 주소가 임의로 변경·등록되는가 하면 같은 주소지에 7~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였다고 한다. 또 당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출마

후보자들이 과열 경쟁을 빚으면서 초래된 결과다.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6만여명이 새롭게 당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니 그 열기를 짐작할 만하다. 이들 중 정점으로 본인 리당원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당원서 정황이 가려내야 할 일이다. 이유는 민주당을 비롯 어느 당이든 경선에서부터 민의가 왜곡되는 안되기 때문이다. 비록 당내 경선이라고는 하지만 불·탈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이 같은 후보자가 주민대표로 당선된다면 유권자 민의의 심각하게 왜곡되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지역민심을 악용해 불·탈법을 부추기는 후보들이 있다면 애초부터 씩씩 도려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빼앗긴 텃밭을 다시 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이 같은 목표를 세웠다면 당부하건대 경선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일이다.

코레일 정상화로 국민 신뢰 회복하자

“문제인 대통령이 공약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2일 광주 송정역에서 외친 노조의 목소리다. 이들의 요구는 ▲KTX-SRT 고속철도 통합 ▲총액인건비 정상화 ▲1조2교대 시행 ▲교번 근무기준 개선 ▲일근 임금 기준 개선 등이다. 노조 측이 요구한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로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코레일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 직원들 사이에서 경쟁하느라 성과 위주의 업무가 여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파업 첫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전가했다. 정부도 이러한 코레일의 입장에 '예산이 부족하다. 성과 없이 무조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이 아닌 성과 위주의 경영을 인정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안전시설 담당하는 5,000여명의 직원이 감축되며 시설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지난 2018년 겨울 잇따른 열차 탈선 사고



김종찬
사회부 기자
가 그 결과이다. 철도가 겨울이면 수축돼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코레일 측에서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발생한 사고로 수많은 국민들이 다쳤다. 코레일이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은 비행기와 고속버스지 코레일 내부가 아니다. 철도노조는 11월 초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타협되지 않으면 11월 중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공언했다. 철도노조가 지난 2016년 9월 27일부터 역대 최장기인 72일간 파업을 벌여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것을 잊으면 안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가 올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관계당국은 인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 뒤 가능한 안전 인력을 최대한 확보, 국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코레일로 거듭나야 한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희철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용만 주필 노두호 편집국장 박원우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Table with 2 columns: 기사제보 and 광고문의.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news tips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